

글로벌 No.1 도약을 꿈꾸는

# 레이저 의료기기 선두 기업 (주)루트로닉

글 송영은(고양시 소설기자) 사진 송영은, (주)루트로닉



루트로닉 사옥 전경

2020년 미국 로레알, 엘러간 등이 수상한 상인 New Beauty Awards 베스트 대표 시술 부문 수상,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통령 표창, 2012~2022년 월드 클래스 300 기업 선정 등 국내 최초로 빛과 에너지에 기반한 의료기기를 만든 (주)루트로닉이 받은 상만 나열해봐도 벌써 내공이 느껴진다.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은 (주)루트로닉은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으로 레이저 의료기기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5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주)루트로닉의 황해령 대표를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루트로닉 센터에서 만나 글로벌하게 달려온 그간의 스토리를 들어왔다.

### 창업과 함께 닦친 IMF... 집 팔아 살려낸 루트로닉

13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 길에 올랐던 루트로닉 황해령 대표는 예일대에서 공부한 후 미국 기업에 취업해 레이저 의료기기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했다.

고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던 그는 1997년 7월 루트로닉의 전신인 맥스 엔지니어링을 설립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지며 창업하자마자 위기에 봉착했다. 기술 개발에 전념하다 보니 자본금이 부족해 황 대표는 집을 팔고, 창업 멤버들은 월급까지 반납하며 힘들게 생활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자체 개발한 제품이 16종에 이르고 4개의 동종 경쟁 업계 1등 제품을 보유한 명실공히 국내 정상급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2006년 9월 루트로닉(LUTRONIC: '빛'을 의미하는 Lux와 '전자'의 뜻을 가진 Electronic의 합성어)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2013년 1월에 지금의 행신동 사옥인 루트로닉 센터로 이전했다.

### 아낌없는 R&D 투자로 국내외서 인정받은 기술력

연 매출액 중 약 15% 이상을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본사 임직원의 30%를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한 루트로닉은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현재 574건의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출원 중에 있다. 회사 제품 기반 임상연구를 통해 337건의 국제 논문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직판하고 있으며 전

세계 65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에스테틱 레이저 기기 피코플러스, 지니어스, 클라리티2는 세계 1등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효자제품 삼총사다. 또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항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 '알젠'은 안과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연 장비이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언택트(untact)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개인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믿음

루트로닉 센터 건물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최고층에는 직원 식당이 위치해 있다. 이는 가장 좋은 공간을 많은 직원과 공유하고 싶다는 황해령 대표의 마인드에서 비롯됐다.

“일과 삶의 균형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은 기술력과 더불어 열정적인 직원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를 위해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루트로닉에서는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했을 만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돋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사내에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 직원이 많고 식당 조리사와 건물 관리원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깝고, 공기 좋고, 주거 환경이 뛰어난 고양시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활발하게 홍보해 주시고, 기업 지원도 확대되길 바랍니다.”

5년 이내에 동종업계 세계 1등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는 황 대표. 사회에 유익한 솔루션을 개발해 인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기업 모토인 루트로닉의 향후 성공 스토리가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루트로닉 황해령 대표

### MINI INTERVIEW

루트로닉 역사의 산증인  
로버트 글렌 칼더헤드 박사  
(Dr. R Glen Calderhead)



“일산동구 장항동 주민 글렌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 제가 루트로닉과 함께 일하게 된 건 2003년부터, 고양시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이곳에 오래 머물게 된 이유는 엔지니어링과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탁월함, 열정적인 회사 분위기가 저를 매료시켰기 때문입니다. 고양 라이프에 있어서 큰 즐거움은 여가 시간에 호수공원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저의 건강 유지 비결이기도 해요. 루트로닉에서 근무하는 것과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만큼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고양시는 환경이 깨끗하고 교통이 편리해서 외국인이 살기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저를 위해 친절을 베풀어주는 이웃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일론 코로나19가 종식돼서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를 즐기고 싶습니다.”



루트로닉이 받은 상패들